

2017년 프랑스 대선과 그 시사점

안세릉 연구위원
김형준 연구위원

ISSUE REPORT



2017년 프랑스 대선과 그 시사점

안세룡 연구위원(sahn@hf.go.kr)
김형준 연구위원(hkim@hf.go.kr)

이 리포트는 최근 있었던 프랑스 25대 대선의 시사점을 서술한다. 이번 대선의 결선에 진출했던 두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보고 그 공약들이 유럽 및 우리나라에 정치·경제에 주는 의미를 간단히 정리한다.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마크롱의 정책적 노선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택금융과 공사 사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본다.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주택금융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 배경

- **지난 5/7일(현지시각) 있었던 프랑스 대선 2차 투표에서 마크롱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서 25대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막을 내림**
 - 프랑스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차지한 후보가 없을 시,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
 - 1차 투표에서 마크롱(24.01%), 르펜(21.30%) 후보가 상위 1, 2위를 차지
 - 2차 투표에서 마크롱이 65.8%의 득표율로 당선
- **마크롱은 중도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국내외 금융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기대**
 - 1차 투표 결과의 상위 4명은 극우, 극좌 후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1차 투표 이전 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나타나기도 함
- **이 연구를 통해 이러한 프랑스 대선의 결과가 유럽 및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함**
 - 그간의 대선 진행 상황과 마크롱 차기 프랑스 대통령의 정책이 국내외 정치·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로 함

2. 프랑스 대선 1·2차 투표까지의 흐름

■ 올해 초 르펜의 대선 승리 가능성 상승은 프랑스 금융시장에 충격

- 2/22일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는 1.02%로 상승하면서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가 12년 이후 최대 수준인 74bp로 확대
- 프랑스 CDS 프리미엄은 70bp로 한국에 비해 26bp나 높은 수준 기록

■ 르펜 지지율의 상승 배경에는 강경한 이민·치안 정책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지지가 있었음

- 프랑스는 동화주의적 이민정책을 시행해왔으나, 무슬림 2~3세대들의 부적응 문제와 이후 테러 등으로 사회 불안감이 증폭됨
- 이러한 상황에서 르펜은 프랑스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반이민 정책과 강경한 치안 정책을 강조하면서 프렉시트(Frexit, 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

■ 1차 투표 전까지 유로화 변동성이 상승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대

- EU내 경제규모 2위인 프랑스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극단적 성향을 보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EU 및 유로화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

■ 1차 투표(4.23일) 결과 마크롱과 르펜이 2차 결선에 진출하고, 또한 2차 투표에 대한 양자 대결 설문조사에서 마크롱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대선 관련 리스크가 크게 감소

- 르펜의 지지율 상승에 따라 불안감을 보였던 프랑스 증시는 1차 투표 이후 프렉시트 우려 감소로 크게 상승하며 9년 만에 최고치 경신
- 또한 EU 체제 유지에 대한 기대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가 나타남

[표1] 프랑스 1차 대선 투표 후보별 득표율

순위	후보명	정당	성향	득표율	결선
1위	에마뉘엘 마크롱	앙 마르슈 (EM)	중도	24.01%	진출
2위	마린 르 펜	국민전선 (FN)	우파	21.30%	진출
3위	프랑수아 피용	공화당 (LR)	우파	20.01%	-
4위	장뤽 멜랑송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FI)	좌파	19.58%	-
5위	브누아 아몽	사회당 (PS)	중도좌파	6.36%	-
6위	니콜라 뒤퐁애냥	약진하는 프랑스 (DLF)	중도우파	4.70%	-
7위	장 라살르	저항하자!	생태주의	1.21%	-
8위	필리프 푸투	반자본주의신당 (NPA)	극좌	1.09%	-
9위	프랑수아 아셀리노	인민공화연맹 (UPR)	우파	0.92%	-
10위	나탈리 아르토	노동자 투쟁 (LO)	극좌	0.64%	-
11위	자크 세미나드	연대와진보 (S&P)	우파	0.18%	-
				투표율	77.77%

■ 그러나 2차 투표 이전까지 금융시장에서는 르펜 당선 시 발생 가능한 프랑스 통화 약세와 자본이탈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 여전

- 다만 프렉시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우세했음
 - 프랑스 헌법에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어 프렉시트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
 - 또한 프렉시트 찬반투표를 시행하더라도 의회 양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르펜이 속한 국민전선은 현재 하원 577석 가운데 2석만 차지

■ 2차 투표 결과 마크롱이 65.8%의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

- 마크롱 당선으로 프랑스 및 유로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크게 해소

[표2] 프랑스 2차 대선 투표 후보별 득표율

순위	후보명	정당	성향	득표율
1위	에마뉘엘 마크롱	앙 마르슈 (EM)	중도	65.78%
2위	마린 르 펜	국민전선 (FN)	우파	34.22%
			투표율	75.12%

3. 마크롱과 르펜의 주요 정책

■ 마크롱은 중도주의, 르펜은 극우주의로 알려져 있음

- 마크롱은 은행가, 경제장관 출신으로 전통적인 자유 시장경제주의자로 평가되며 기존 정치체제를 전면 비판하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장
- 르펜은 프렉시트 국민투표 실시와 이민자 반대·난민 유입 저지 등 프랑스 우선주의적인 공약 발표

[표3] 마크롱과 르펜의 정책 비교

분야	마크롱	르펜
재정	공공지출 GDP대비 50%로 감축 산업혁신 프로젝트 50억 유로 지원	공공지출 GDP대비 50%로 감축 중앙은행의 국제 상황
세제	사업소득세 인하 소득세 점진적 인하	대기업 증세 최고세율을 46%까지 인상
노동·복지	주35시간 근무제 유지 노동법 개정으로 기업에 유연성 제공	주35시간 근무제 유연화 은퇴연령 60세로 하향
대외	EU 재정정책 통합 각종 FTA 추구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 NATO 탈퇴

※ 자료 : 옥헤인·유승민(2017)1)

1) 옥헤인·유승민, 2017, 프랑스 대선 D-60: 지지율 추이 및 주요 주자 정책 업데이트

- 두 후보 모두 공공지출을 감축한다는 공약에서는 일치
- 마크롱은 기존 정치체제를 전면 비판하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주장
 - 사업소득세 인하, 노동법에 유연성 제공 등 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목표
- 르펜은 EU 탈퇴 국민투표 실시와 이민자 반대·난민 유입 저지 등 프랑스 우선주의적인 공약 발표
 - 또한 마크롱과는 반대로 대기업 증세와 최고세율 인상 등 반기업적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

■ 또한 마크롱은 기타 다음과 같은 공약을 제시

- EU 가입 유지뿐만 아니라 유로-캐나다 FTA, 유로-미국의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대해서도 필요성 주장
- 노동 유연성 강화를 위해 정년과 연금을 제외하고 기업에 노동자와의 협상에 대한 재량권 부여 공약
- 향후 5년간 500억 유로 규모의 공공투자를 통해 의료·보건 개혁과 인프라 개선 공약
- 공무원 12만명 감축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하 추진

4. 대선 이후 유럽 및 국내 영향

1) 유럽에 미치는 영향

- 1차 투표 이후부터 마크롱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장은 이미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
- 유로존에 대한 긍정적 투자심리가 형성되어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프랑스 증시는 상승세 지속

■ 2차 투표 직후 유로화의 가치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 기록

- 유로당 1.1023달러를 기록하며 전거래일 대비 0.3% 상승
- 장기적으로 유로당 1.12~1.2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제시되는 등 유로화 가치 증대 예상(HSBC, UBS 등)

■ 마크롱의 당선은 ECB의 양적완화 해제 가능성을 증대시킴

- 유로존 통화정책회의(4/27)에서 드라기 총재가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를 언급하였으며, 시장에서는 빠르면 6월에 본격적인 출구정책을 보일 것으로 전망
- ECB는 당초 올 3월에 끝낼 예정이었던 양적완화를 9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나, 이후 통화부양 규모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신호를 보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현재 ECB는 국채 및 회사채를 매월 600억 유로씩 매입 중

■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는 유럽 주가 및 국채금리의 단기적인 동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외국인의 투자 증대 및 경제·증시·통화가치 상승의 선순환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

■ 다만 영국의 하드 브렉시트(Brexit) 실현 가능성은 증대

- 마크롱은 브렉시트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 이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 특히 마크롱은 영국과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교류는 힘들 것이라 언급
- 또한 마크롱은 브렉시트 이후 금융 중심지로서 파리의 위상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주장해 왔음
- 테러 위협 등 안보의 측면에서는 영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기대

- **마크롱이 창당한 사회민주주의 정당 앙마르슈는 현재 프랑스 의회 전체 925석 가운데 단 1석도 차지하고 있지 않아 향후 정책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도 있음**
 -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 정책 추진과 인사 기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과 유사한 상황 발생 가능
 - 이에 따라 마크롱은 가능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총선 출마 희망자 3만 명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2) 국내에 미치는 영향

- **1차 투표 이후 나타난 유럽 금융시장 안정세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긍정적이었음**
 - 프랑스 1차 투표 전후부터 국내 주가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시장금리 역시 소폭 상승세 기조를 보임
 - 4/28일 시카고옵션거래소의 변동성지수가 3년래 최저로 하락하는 등 프랑스 대선 우려 해소는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 유럽 경제 정상화 기대는 국내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
 - 특히 독일의 금리 상승은 향후 달러 약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인의 순매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 **대선 이후 유럽 지역의 안정·성장세는 국내 시장금리 하방 압력 감소로 나타날 전망**
 - 시간이 흐름에 따라 대외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해외자본 유출 압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위험자산선호 성향은 줄어들어 채권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음

- 원/달러 환율은 불확실성 제거 이후 펀더멘털을 반영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무역수지 증가 등은 원화강세로 나타날 전망
- 미국과 유럽의 경기 개선과 금리 상승은 공사 사업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글로벌 경기 개선은 우리나라 수출 증대 등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금리 상승세에 연동하나 국내 경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내 시장금리 상승은 서민 경제 및 공사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외자본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그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5. 결론 및 시사점

-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프랑스 및 유럽 지역 정치 불안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된 것은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 요인
 - 유로존 안정세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여 국내 금융시장 안정으로 나타날 전망
- 다만 2차 투표 결과에서 르펜의 지지율이 34%이상으로 나타난 것은 여전히 프랑스 및 유럽에 민족주의 성향 확산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 이민자 문제와 테러 등의 악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EU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증대될 수 있음
 - 마크롱 정부가 침체된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지 못할 경우 프랑스 사회의 분열과 갈등 악화 위험 존재
- 따라서 단기적으로 최근 유로존의 개선세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나,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이어질 ECB의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과 대내외 정치적 이슈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작성자 : 안세룡 연구위원 (051-663-8175 / sahn@hf.go.kr)
김형준 연구위원 (051-663-8178 / hkim@hf.go.kr)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주택금융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